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0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8. 예수 우리 왕이여
♠ 공동기도	다함께

좋은신 하나님, 여름 띄약벌 아래를 걷는 것처럼 허덕일 때면 주님은 시원한 냉수 한잔을 예비하시어 건네주십니다. 넉넉한 그늘을 드리워 지친 이들을 품어주는 느티나무처럼 크고 서늘한 주님의 품이 그립습니다. 두려움 많은 우리들이오나 받아 주시고 도와 주시는 은혜 바라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굳은 살같은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 새살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온갖 걱정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속에 넘실거리는 세상 걱정을 하나님의 능력안에 가두어 주십시오. 닫혀진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 밝히 보아 기쁨으로 뚝뚝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머무실만한 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 교 독 문	71. 이사야55장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황경순 교사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87(통535).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성경봉독	I. 빌3:2-11 김제우 학생
	II. 벰전5:6-11 정원석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개들을 조심하라 손성현전도사
	II. 우리는 지지 않는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388(통441). 비 바람 칠때와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리지 말고, 성실과 인내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들어 살아갈 온전한 믿음을 우리 속에 창조해 주십시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고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김기석 목사	말씀: 김기석 목사
기도: 윤주원 권사	기도: 오자영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재흥 목사	이명희 집사 장영숙 전도사	이성익 학생 김정애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범희 배근수 강순배 박미영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진리는 인격적이다.

기독교 본연의 신앙, 아버 펠릭스가 따랐던 그 신앙은 “내가…진리다”라고 말씀하신 한 인격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할 것이다”라거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 말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진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인격 안에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하셨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논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명제나, 실험실에서 시험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제시하셨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분과의 관계로, 또 그분을 통해 인간 마치 비인간 세계로 이루어진 전체 공동체로 초대되었다.

초대 기독교는 명제적 진리가 아닌 인격적 진리를 중심으로 삼았기에, 그 가장 심원한 통찰들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다음 이야기도 그런 예 중 하나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객관주의 왕국에 대한 도전을 목격하게 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는 어떻게 알려지는지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재판관을 받기 위해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셨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다. 예수님은 “그것은 네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라고 대답하신다. 빌라도는 화를 내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며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것은 바로 그들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예수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다. 예수님은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체포와 재판관을 막기 위해 제자들이 공권력과 싸우지 않았던 사실을 그 증거로서 빌라도에게 상기시켜 주신다. 이러한 탈속적인 대화를 세속적으로밖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빌라도는 “아무튼 네가 왕이냐?”라고 소리치른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진다.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는 냉소적 비웃음 혹은 절망 어린 한숨과 함께 그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아마 둘 다 섞여 있었으리라. 그러나 ‘진리’라는 단어에서는 냉소도 절망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도달할 수 없는 것 심지어 몽상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말이다. 빌라도의 편견은 바로 그 ‘무엇’(what)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난다. 빌라도는 그 단어를 통해 자신이 객관주의자의 전형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진리를 ‘무엇으로 보는 생각’(whatness)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의 인격 안에 진리를 구현하고 계신 분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분은 ‘저쪽 바깥’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 빌라도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려 하는 주체다.

빌라도는 첫 대면의 순간부터 예수님을 ‘왕’이라는 범주에 강제로 밀어넣음으로써 그분을 객관화하고자 한다. 그는 예수님을 당시의 정치적 술어로써 이해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격이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범주들을 거부한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첫 질문이 인격적 이해가 아닌 비인격적 희화(caricature)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지적 하시면서, “그것은 네 말이나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나?”고 물으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 그것은 객관적인 정치적 술어로 파악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인격적 주장을 제기하신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러한 인격적 진리를 이해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 인격을 자기로부터 멀찍이 두고, 그분을 하나의 대상, 사물, ‘무엇’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진리를 객관적 술어로 환원시킴으로써 스스로 진리가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지배력을 보장해 주는 객관주의를 위해, 자신을 대화로 부르는 인격적 진리를 살해하는 일에 동의하고 만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 이해에서 진리는 ‘저쪽 바깥’에 있는 대상도, 그러한 대상에 대한 어떤 명제도 아님을 보여 준다. 진리는 인격적이며, 모든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려진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격적 진리의 패러다임이자 모델이시다.

눈 감고 간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밭부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외짝 떠라.

- 윤동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시내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김준우 우순덕 김순복 전영웅
 김일랑 이은옥 김정섭 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박애순 배근수
 김금순 배상순 권호진 백묘현 윤미경 윤수진 이광용 형인순 이예정
 이정규 이인섭 정한구 왕영순 서수진 강미선 김성한 조영순 양재성
 임미심 김재흥 최희영 전세종 김정민 왕성환 강순배 권미숙 무명

월정헌금:

김미순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윤성종 김윤정 이인웅 정두리 조순덕
 김문주 한성건 김영순 최동운 박찬정 이경남 송의섭

감사헌금:

김일랑 김남종 오복순 권미숙 주한나 주요한 정희선 문영혜 김준우
 최종훈 김금하 정현숙 오정숙 전성오 전세종 김정민 정수복 장미란
 김성경 박옥식 장원호 박성희 백혜숙 이인섭 박범희 김남홍 선우영
 한지혜 김윤숙 박계순 정현창 고재중 강혜실 김인걸 무명4
 새터교회

생일감사헌금: 배부레

녹색꿈 헌금: 박병구 안정숙 윤미경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침	침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평화통일기도주일** : 다음주일(16일)은 남북 교회가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2. **여름행사** : 오늘 청년부 농활을 끝으로 교회 여름 수련회가 종료됩니다.
3. **청피장학생**: 다음 주일 예배 후 담임 목사실에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4. **신앙실천** : 휴가 비용의 일부를 절약해 몽골 <은총의 숲> 조성을 위해 봉헌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다음 주 : 안디옥 속)

* 설거지 봉사 : 방문성 박병구 (다음 주 : 윤종권 박권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